

• 풍향계 •

### 과학자와 벤처인, '대덕밸리 연합 송년회'

대덕밸리 과학기술인과 벤처기업인들이 함께 하는 합동 송년회가 열렸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단장 이용훈)은 지난 17일 '2002 대덕밸리 송년회'를 개최했다. 대덕밸리가 선포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장 큰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과 벤처기업인들이 함께 송년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명사 초청 특강, 난타 공연, 대덕밸리 10대 뉴스, 대덕밸리 빛나는 조연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강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두레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레마을 대표 김진홍 목사의 강연도 있었다.

김 목사는 이날 송년회에서 과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 했다.



▲ 대덕밸리 합동 송년회

### 대덕밸리 이젠 디자인으로 승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디자인' 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결국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덕밸리 벤처기업 가운데 디자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은 게이트전자를 비롯해 케이스퍼, 코메스타, 힘스코리아 등 B2C 제품을 제조하는 곳이다.

DVD, PVR, 인터넷 등 모든 멀티미디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 셋톱박스'를 개발, 생산에 들어간 게이트전자(대표 이종민)는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덕밸리 디지털가전전문기업 케이스퍼(대표 김성호)는

TFT-LCD 패널을 이용한 'LCD TV'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의 개발진들은 외부의 디자인 팀과 합동으로 LCD TV 디자인을 A4 한 장만한 크기에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벽면에도 걸 수 있도록 디자인해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디자인작업을 하다보니 실제 제품양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제품에 이어 차기 제품의 디자인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대덕밸리 키보드 전문 업체 코메스타(대표 김환철)는 '고급화'를 내걸어 디자인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첫 제품인 '알키 키보드'를 시판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급스러운 제품 이미지와 편리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크론정보통신, 美포톤사에 인수합병



▲ 에크론정보통신 전경

에크론정보통신(대표 홍기현)이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에 인수합병 됐다. 대덕밸리 기업이 나스닥 기업에 인수 합

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400만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에크론정보통신 주식을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최종 성사됐다.

에크론정보통신을 인수·합병한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기업인 'Photon Dynamics社'로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시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연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기업이다.

이에 따라 에크론정보통신은 'Akcron Photon Dynamics'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으며 LCD 검사장비 개발 및 LCD 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홍 대표는 Akcron Photon Dynamics의 지사장 역할을 하게 되며, 전 직원은 고용 승계됐다.

• 풍향계 •

대덕밸리에 '쌍둥이 빌딩' 첫 선



▲ 쌍둥이 빌딩 전경

대덕밸리 쌍둥이 빌딩' 으로 불리는 이 건물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기가씨앤이(대표 최각진)와 아스텔(대표 유하영)이 각각 사옥을 짓고 입주식을 가졌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두 개사가 건물 외관이 동일한 신사옥을 각각 마련하고 입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명 '대

쌍둥이 빌딩이 위치한 곳은 국내 최대의 IT 벤처협동화단지인 대덕밸리협동화단지(대표 신용호)로 한국과학재단과 대덕대 사이에 있다. 이 곳에는 이미 20여 개의 벤처기업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입주를 마친 상태다.

양사가 같은 부지에 나란히 동일한 외관의 신사옥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공동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최 대표와 유 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업기업으로 연구원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로 창업 이후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비로소 이웃사촌이 돼 기쁘다"면서 "가까이 있는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대표는 "서로 기술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은 기업 중 하나"라며 "연구원 선배이자 같은 벤처기업인으로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 신제품/신기술 •

케이엠텔, 혼자 하는 프리젠테이션 개발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자리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다음'이란 소리가 사라지게 됐다.

케이엠텔(대표 연광

일)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무선으로 PC화면을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마법사 '스마트 포인터'를 출시했다. 지금까지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강의자와 보조자가 짝을 이루거나 강의자 혼자 노트북 결을 떠나지 못하고 강의를 해야만 했다.

이 제품은 RF(고주파회로)방식을 채택, PC로부터 반경 15M 내에서 어느 방향에서든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화면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어, 보다 역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USB방식을 적용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에 연결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손 안에 쉽게 쥘 수 있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프리젠테이션 시 활용에 불편함이 없다.

문의 : 042-864-4991

송죽테크놀로지, 일체형 터보블로워 출시



송죽테크놀로지(대표 이병국)는 정압 공기베어링을 이용한 일체형 터보 블라워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일을 이용한 방식이 아닌 청정에너지원인 공기를 이용한 신개념 방식의 공기 공급 장치의 핵심부품이다.

구동축과 회전축이 일체형으로 동력전달에서 오는 소음과 진

동이 전혀 없으며 에어베어링을 적용해 베어링 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대 1백마력의 동력과 4만rpm의 고속 회전력을 갖추고 있어 대용량의 에너지와 공기를 공급하는데 적당하다. 회사 측은 "전력 소비량도 최대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용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형 경량화함과 동시에 구조가 간단해 작동과 정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화학플랜트나 곡물보관시설, 폐수처리시설, 시멘트 플랜트, 공기 이송장치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문의 : 043-217-5322